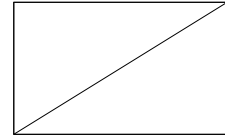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 안 번 호	제 2 호
의 결	2025. 2. 20.
연 월 일	(제 3 회)

심
의
사
항

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

국가인공지능위원회

제 출 자	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
제출 연월일	2025. 2. 20.

1. 의결주문

-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AI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해 AI 활용 수요 및 시장창출, 나아가 AI 현장활용 1등 국가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추진 배경

- ☐ AI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, 기업의 혁신·생산성과 직결되고 있으며,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 전망
- AI 현장 활용과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절실하며, 유망 스타트업 및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

나. AI 스타트업 현황 및 문제점

- ☐ AI 기술공급 및 데이터 활용 미흡, 스타트업 개발 AI 기술과 모델의 수요확보 등에 애로가 있으며,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투자 및 글로벌 진출기회 부족

다. 추진목표

- ☐ AI의 현장 활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스타트업을 육성함으로써, 우리가 강점이 있는 특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
- 중소기업 AI활용에 대한 글로벌 평가를 현 12위에서 '27년까지 5위로 상향 추진
- 글로벌 AI 분야 유니콘을 현 0개(美CB insight, '24)에서 '27년까지 5개사 육성 추진

라. 지원전략

□ “분야별 AI 스타트업(AI Solution Provider)”의 역량 강화

- 연합학습 등 기업간 협력을 통한 AI 모델 공동개발을 지원하여, 분야별 AI 서비스 공급 스타트업 육성 및 BM 창출·확산
- 분야별 AI 모델 개발을 지원할 데이터 생성 LAB 구축을 검토하고,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

□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한 “AI 활용 수요 및 시장 창출”

-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연계해서 특정 산업 문제해결에 특화된 분야별 AI 서비스를 개발하고, 이를 통해 새로운 수요 창출
- 산업·업종별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, 중소·중견기업 경영진 등에 대한 AI 활용 Literacy 개선 지속 추진

□ 지속가능한 AI 스타트업 지원 체계 강화

-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고, 실패가능성이 있더라도 성과가 기대되는 도전적 R&D 집중 지원
-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협력 지원을 강화하고, 지역 AI 혁신허브 구축
- AI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출구전략 지원을 위해 기업간 인수합병 활성화

별 지

인공지능(AI)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

2025. 2. 20.

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AI 스타트업 현황 및 문제점	2
III. 추진목표 및 지원전략	4
1.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	5
2.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한 AI 수요 창출	8
3. AI 스타트업 지원체계 강화	9
IV. 추진일정	11

I. 추진배경

① AI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, 기업의 혁신·생산성과 직결

- AI 기술은 미래를 변화시킬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*받고 있으며, 초거대/생성형, 에이전트/로보틱스 등으로 빠르게 진화

* (에릭 브린올프슨, MIT) "과거 증기기관·전기같이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은 AI"

- AI는 신기술 개발의 시간·비용을 줄이고,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, 도입 여부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

- 기업의 신제품·서비스 개발, BM 창출 및 생산성 혁신의 핵심 요소*로 부상하고 있고, 향후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** 예상

* AI를 활용하는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5배 이상 높고, 임금도 25% 향상 (PwC, '24)

** AI시장 성장률(마켓앤마켓, '24.)은 연평균 36.8%로 한국 잠재성장률 2% 대비 18배

②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 전망

- AI 기술은 제조, 금융, 헬스케어, 이커머스/유통 등 산업 전반에 결합(AI+X)되어 우리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기폭제 역할 기대

* AI 기술이 모든 산업 및 서비스 활용, 향후 10년간 전세계 GDP 7% 증가 예상(골드만삭스, 2023)

- 또한, ChatGPT(美), DeepSeek(中) 등 초거대 AI 기반으로 전문분야 특화 데이터 및 기술과 결합*하는 AI 서비스 개발단계**로 발전 중

* 관다(수학특화 AI모델), 업스테이지(금융·법률 등 AI모델), 트웰브랩스(영상분석 AI모델) 등

** 1단계(Infra: GPU, 데이터센터, 전력, 클라우드) → 2단계(Edge: AI스마트폰/PC) → 3단계(Applications: 개인비서, 자동Agents) → 4단계(Physical: 자율주행, 휴모노이드)

◆ AI 현장 활용과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절실

⇒ 유망 스타트업 및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이를 뒷받침

Ⅱ. AI 스타트업 현황 및 문제점

① AI 기술공급 및 데이터 활용 미흡

- **(AI 기술수준 미흡)** 국내 AI 기술기업은 2,354개사로, 대부분 신규 AI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('24, SPRI)

* ① AI SW 개발 및 공급업, ② AI 구축·관리 및 관련 정보 서비스업, ③ AI 연산 처리 및 부품/장치 제조업(KSIC를 연계하여 SPRI에서 재분류)

구분	도입기 (서비스 개발)	초기성장기 (신규서비스 출시)	고도성장기 (시장 다각화)	성숙기 등 (성장 둔화)	합계
기업 수(개사)	326(13.8%)	1,356(57.6%)	525(22.3%)	147(6.3%)	2,354(100%)

- 강점을 가진 제조 분야도 AI 기술력이 낮고·발굴·육성 시스템 부족

* 스마트제조 기술수준('24, 중기연) : 美 100% > EU 97.2% > 日 88.8% > 中 82.3% > 韓 74.9%
등록 공급기업 수('24, 중기부) : ('16) 299→('20)1,959→('24)2,460개 / 중소기업 89%

- **AI 기술별**(sLLM·온디바이스 등), **업종·분야별**(제조·바이오·헬스케어 등) 수요·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에 대한 체계적 육성전략도 부족

* AI 도입 미흡원인(KDI, '23) : 기업 수요에 부합한 **AI기술 공급부족**(1위, 35.8% 응답)



■ AI 기술은 정부의 선별적·집중적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성숙 가능. 일본처럼 업종별 우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모델 개발이 필요 <AI 스타트업 간담회, '25.2 >

- **(데이터 활용 한계)** 데이터 부족이 AI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(IT World, '23)으로, AI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·관리가 필수

- 그럼에도, 기업 영업비밀 문제*로 데이터 공유가 어려울 뿐 아니라,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통합·연계·호환이 어려움

* 예) (E社 : 자율주행SW) 기업간 공유는 현실적으로 민감 → 자체생산한 데이터만 활용



■ 개발한 AI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집단이 없음
■ 에너지기업 등 일부 업종은 데이터 가명처리로 활용애로 <AI 스타트업 간담회, '25.2 >

②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기술과 모델의 수요확보 등에 애로

- **(AI 시장의 미성숙)** AI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관련 수요-공급 시장이 미성숙하여 수요처 확보 곤란



- AI 기술개발에만 집중하고, 실제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
- 방산 분야의 경우 최종 수요처가 명확한데 반해,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수요처가 불명확 <AI 스타트업 간담회, '25.2>

- **(대·스타 협업 부족)** 특히, 대기업이 필요한 AI 기술을 자체 개발함으로써, 스타트업의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 향상 및 판로확보 기회 제약



- H사 등 일부 대기업은 기술 유출을 우려하여 자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, 스타트업은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 부족 <AI 전문가 간담회, '25.2>

- **(정보 등 맞춤형 지원 부족)** '필요한 AI 솔루션이 무엇인지', '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' 등 AX 도입·활용을 위한 정보 획득 애로

* AI 활용 조사(대한상의, '24) : 대기업 48.8%, 중견기업 30.1%, 중소기업 28.7%

** 소상공인 디지털 실태조사('23) : 디지털 기술 도입의향 70%, 디지털 기술 도입율 29%

③ AI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금·투자 및 글로벌 진출기회 부족

- **(자금·투자 부족)** 한국의 AI 분야 민간부문 투자는 14억불로 미국 672억불의 2%, 중국 77억달러의 18%로 미흡한 수준(美 Stanford大, '24)

* AI 분야 민간투자(美 Stanford大, '24) : 미국 672억달러(1위), 중국 77억(2위), 영국 38억(3위)

- **(글로벌 진출 필요)** 국내 유니콘의 대부분은 내수중심의 플랫폼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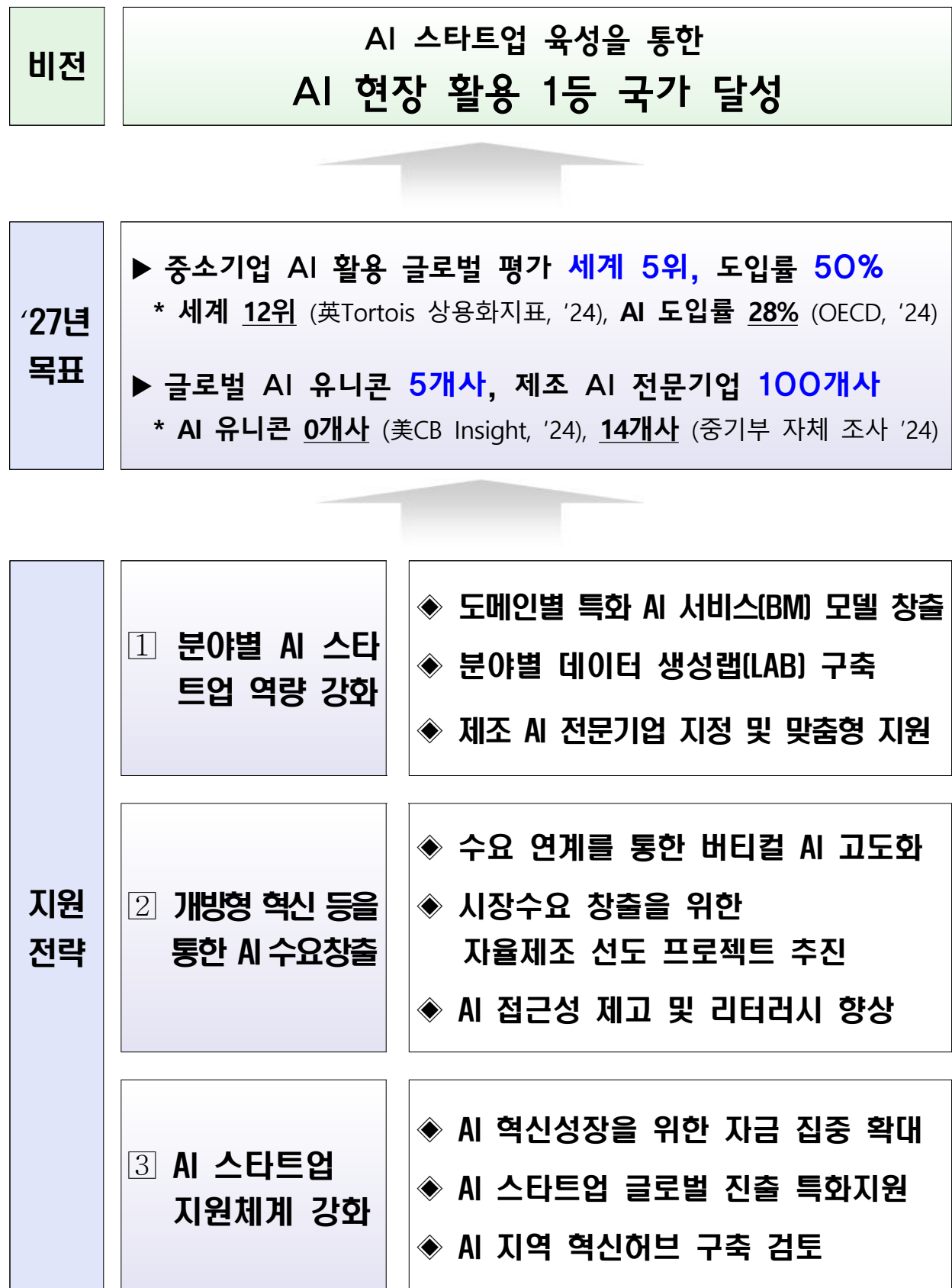
* 국내 유니콘 기업 15곳 중 12곳은 내수 위주 B2C 기업인 반면, 세계 유니콘 기업 533곳 중 416곳(78%)은 글로벌 지향의 B2B 기업 (조선일보, '24.7)

- **(AX 조력자 부재)** AX의 필요성에 비해 관련 인식수준이 낮은 업종·분야(제조업, 서비스업, 소상공인 등)에 맞춤형 AI 솔루션 지원체계 부족



- AI 기술을 활용하려면, 비용 대비 부가가치가 높아야 하는데, 어떤 솔루션이 좋은지, 우수한 AI 공급기업이 어디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음 <기업 간담회, '24.12>

Ⅲ. 추진목표 및 지원전략



1 분야별 AI 스타트업(AI Solution Provider)의 역량 강화

1 도메인별 특화 AI 서비스(BM) 모델 창출

□ **(내용)** 특정 산업분야,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업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(sLLM) 개발을 집중지원하여 도메인 특화 AI모델 BM창출·확산

* 사례) 일본 "GENIAC 프로젝트('24.2~)" : 생성형 AI 모델 육성을 위해 사카나AI 등 5개 스타트업과 대학 등이 참여해 클라우드 비용 포함 프로젝트 당 100억 규모 지원

□ **(대상)** 특정 분야별* 복수의 유망 스타트업과 전문기관(대학·연구소 등), 수요기관(대·중견·중소기업 등) 등이 참여

* 분야예시) 의료/헬스케어, 이커머스/유통, 관광/콘텐츠, 환경, 핀테크/금융, 모빌리티/교통, 제조

□ **(방식)** 컴퓨팅, 모델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 집중지원으로 BM 창출

○ 도전적 AI R&D 수행을 위해 과제당 대규모 자금투입

- AI의 핵심인 데이터 확보·학습을 위해 데이터 전송·저장 없이 활용 가능한 연합학습* 등 기업간 데이터 공유체계 지원

* (독일/캐나다) FLAIROP 프로젝트를 통해 데이터 유출없이 AI 모델을 소유자에 송부·학습시킨 후 전송받는 연합학습 기반 지능형 제조 로봇 고도화

- 구글, 네이버 등 클라우드 업체와의 협상 지원을 통해 컴퓨팅 비용 절감, 기본 데이터 학습을 위한 학습자원(GPU, NPU 등) 지원

○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검토, 개발된 AI 모델은 다른 AI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개방 검토

< (참고) 오픈소스 기반 추론형 AI 모델의 장점 >

- ▶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고가의 솔루션 구입비용 절감
- ▶ 사전 훈련된 모델과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 AI 도입의 초기 진입장벽 완화
- ▶ 자체 데이터를 오픈소스 모델에 적용시 기업별 맞춤형 구축/유연한 수정 가능

2

분야별 데이터 생성랩(LAB) 추진

- **(내용)**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정확성, 신뢰성 등이 높은 실제 데이터 생성·합성을 위한 분야별 “데이터 생성 LAB” 추진 검토

* 모빌리티, 로봇틱스 등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, 수요기업과 연계 등

- **(계획)** 현장 의견, 구축 필요지역 등 사전 용역·조사를 거쳐 추진

- 지자체 공간확보, 인프라 지원·활용계획 등 사전 조사
- 수요기업과 연계(협력 운영 중견/대기업 참여) 등을 조사하여 멀티모달 데이터 생성·합성 시스템, 데이터 저장·전송 장비 등 지원 검토
- 추진 검토안 예시 : (지자체) 부지·건물 확보, 지역기업 연계
(정 부) 장비지원 등 역할분담

3

제조 AI 전문기업 지정 및 맞춤형 지원

- **(전문기업 육성)** 제조 AI 전문기업 지정 및 단계별 지원

< 제조AI 전문기업 육성 체계 : '27년까지 AI/DT 분야 100개 전문기업 >

분류	공급기업	역량 우수기업	전문기업
내용	스마트 제조분류*에 속한 기술 보유기업	기술력, 사업관리 능력 등 우수기업	요건 충족한 우수 공급기업

- 제조 AI 전략기술 로드맵 수립, 맞춤형 R&D, 해외판로 확대
- 제조 AI 분야 정책자금 지원강화*, 전문인력 양성·공급 등 병행

* 자금 : 제조업 위주에서 AI 전문기업까지 확대(최대 100억원, '25년 4,666억원)
보증 : 스마트제조 서비스 보증 (시설 100억원, 운전 30억원)

2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한 “AI 활용 수요 및 시장 창출”

1 수요 연계를 통한 버티컬 AI 기술 고도화

- **(버티컬 AI)** 특정 산업 문제해결에 고도화된 버티컬 AI 스타트업과 대기업 등 수요처간 협업·연계를 통해 AI 기술 고도화 및 개발 동력 확보

* 협업 분야(예시) : 지능형로봇, 차량 AI 카메라, 인스펙션 드론 등

구 분	추진내용
온디바이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기업 등의 스마트 기기에 스타트업의 AI모델을 탑재하는 ‘온디바이스 AI 챌린지’ 확대(‘25, 20개사) : 사업화 자금, 기술, 판로 지원 * (‘24) 노트북 디바이스 → (‘25) 노트북 + 가전제품 + 프로젝터 + 스마트 TV 등
팹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삼성전자 등 국내 파운드리와 AI 팹리스 스타트업간 협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(MPW) 및 제품 검증(PoC) 등 지원(‘25, 5개사)
헬스케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AI 기술 수요가 있는 병원 협의체와 AI 스타트업간 임상실험 등 협업 후 우수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 * 이대목동병원(난임), 국립암센터(암),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(치매) 등
콘텐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AI로 제작된 콘텐츠(영상 등)의 주요 수요처인 마케팅 에이전시, 광고 기획사 등과 협업을 통한 판로 확보 지원

- **(민관협업 이노베이션)** 대·중견기업(수요)과 Top-Tier AI 스타트업(공급) 등과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

구분	지원내용
문제해결	·수요기업의 협업과제 출제·공모 등을 통해 스타트업 발굴
자율제안	· 민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대·중견기업과 협업
수요기반	·수요기업, 스타트업 니즈가 부합하는 경우 협업관계 구축

- **(딥테크 밸류업)** 검증된 AI 스타트업 발굴 및 풀(pool)을 구축하고, 대기업 수요와 매칭·연계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

- ①대기업 허브센터(창경센터)에 검증된 기업 추천 요청 → ②수요 대기업에 리스트 제공 → ③밋업 행사 → ④민간*/정부 지원자금 지원

* 참여 예정 대기업 연계 엑셀러레이터 : 삼성전자(C-Lab), 현대차, LG사이언스파크 등

2

시장수요 창출을 위한 자율제조 프로젝트 추진 산업부, 중기부

- **(주요내용)** 제품·서비스의 기획, 생산, 판매 등 기업 활동의 세부 단계별 AI 활용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
- **(추진방안)** '30년까지 AI 성공모델 1,000건 창출 및 중견·중소기업계 확산
 -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: '24년 26개 프로젝트 선정을 시작으로 '27년까지 12개 업종별 200개로 확대해 AI 시장 확대
 - * (12개 업종) 자동차, 기계장비, 조선, 이차전지,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전자, 철강, 석유 화학, 섬유, 항공, 바이오, 식품, 소재 등
 - 자율제조 성공사례는 자율형공장, 대중소상생형 공장 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중견·중소기업으로 단계적 확산
 - 제조지원 분야 : 디자인, 유통, 에너지, R&D, 공급망 등 선도 프로젝트의 본격적 지원·확산을 통해 기술 사업화 지원 ('25년~)
 - * 성공사례 인벤토리 구축 및 창의적 AI 활용사례 창출을 위한 AI 챌린지 대회 개최

3

AI 접근성 제고 및 리터러시 향상

- **(AI 인식·교육)** 중소기업의 AI 인식제고 및 기업 내 AI 활용 및 유지·관리를 위한 직급별/직종별 맞춤형 인력 육성

구 분	추진내용
C-레벨	■ 중소기업 R&D 수행기업의 C-레벨 대상으로 AX 도입·활용 교육, AI 공급-활용기업 CEO간 네트워킹 추진
재직자	■ AI/SW 스타트업 취준생, 계약학과, 사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수요와 연계한 인력훈련('25, 1만명) 및 취업 지원
청년 AI인턴	■ AI 학과 운영중인 대학교와 AI 스타트업간 협약 체결후 학부생의 인턴 활동 및 취업지원(정규직 채용시 인턴기간 인건비 최대 6개월 보조)
소상공인	■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특성화 대학 커리큘럼 내 AI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신설('25~)

- **(AX 진단·로드맵)** 개별기업의 AX 수준진단 및 업종·단계별 필요한 AI 솔루션 파악 등을 위한 AX 로드맵 제공

3 AI 스타트업 지원체계 강화

1 AI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 집중 확대 중기부, 과기부, 산업부

- **(자금)** AI, 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'25년 중소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 총량 9.8조원*의 60%(5.7조원) 및 R&D 신규 예산의 50%이상** 공급

* 기술보증 지원(기보, 5.5조원), 중소기업 정책자금(중진공, 4.3조원)

** '25년 중기부 R&D 신규예산 3,301억원 중 1,650억원 이상을 AI 등 전략기술 분야 투자

- **(펀드)** AI 스타트업 등 혁신분야 민·관 협력 투자 펀드 조성·운용
('27년까지 AI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펀드 약 3조원 조성)

구 분	추진내용
스타트업 코리아 펀드	■ AI 등 초격차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펀드 2조원 (~'27, '25년 1,760억원 출자)
글로벌 AI 펀드	■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지원 펀드 2천억원 ('25, 200억원 출자)
KIF 자펀드, AI 혁신펀드	■ KIF 2천억원 (~'25, 이통3사 출자 모펀드 1천억원, 민간 1천억원 매칭) ■ AI 혁신펀드 9백억원 (~'26, '25년 정부 450억원, 민간 450억원 출자)
AI 코리아 펀드	■ AI 밸류체인 전반 선도적 투자 5천억원 (~'25, 산은 1,500억원 출자)
AI기반신산업 펀드	■ AI기반 신산업 R&D 14백억원 (~'29, '24년 민간 700억원 출자)

* 이중 스타트업코리아 펀드, KIF 자펀드는 AI기업을 포함한 첨단기업에 투자

- **(R&D)** DCP*에 AI를 중점분야로 지정, 과제당 100억원 규모 자금 투입

* DCP(Deep-tech Challenge Project) : 전략기술 테마별 고위험·고성과 R&D 프로젝트

- **(M&A)** M&A 전용펀드 확대 등 매수여력 확충 및 중소기업 M&A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·보증지원 강화

- 기술보증기금 M&A 전담센터를 마련('25.上)하고 민간 M&A 중개 기관과 협력*하여 기술보호, 자문, 특례보증 등 지원

* (기보) 매도·매수 수요발굴, 기술보호, 자금지원 등 ↔ (민간) 매칭, 협상 등 중개




2

AI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특화지원 중기부, 과기부

- ☐ **(글로벌 IR)** 'K-Global Star' 프로그램(AI 별도 트랙)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AI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후속 지원*

* 해외투자 유치 성공기업 대상 글로벌 팁스(TIPS), 매칭투자, 기술보증 등 지원

- ☐ **(공동 연구)** 국내 스타트업의 AI 상용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해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지원

*  MIT, 퍼듀大,  슈타인바이스재단, 프라운호퍼研,  인도공과大 등

-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, 공동연구개발, 기술이전 상용화, 협력거점 설립(중장기) 등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동연구 수행

- ☐ **(특화 지원)** AI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AI 전문 액셀러레이터* 도입, 현지 실증**, 특화 프로그램*** 지원

* AI 액셀러레이터 : 美진출 AI 스타트업 대상, 법률·회계 등 현지교육, 네트워킹 등 지원

** Edu-Tech(교육), Ag-tech(농·축산), 디지털 헬스케어, 디지털 제조 등 4개 분야(분야별 5개사)

*** 글로벌시프론티어랩(뉴욕대) 공간·장비 활용, 멘토링·네트워킹 등 美 동부 진출 지원(20팀/연)

3

AI 지역 혁신허브 구축 검토

- ☐ **(주요내용)** 지역별 AI 특화 거점기관(TP·창경센터 등)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, 기업 AI 기초 컨설팅, 솔루션 도입·활용 등 지원

- ☐ **(기관지정)** 제조업,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으로 전문기관 선정

분 야	추진내용
제 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제조 현장에 AI 분석전문가, 솔루션 기업, 지역연구기관이 참여하는 '제조AI센터' 구축('25, 3개소 신규 지정)
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기업 AI 교육, 초기 AI 스타트업 창업 및 네트워킹 지원, 대기업·공공기관 등 공급·수요 매칭 (창경센터)

IV. 추진일정

정책 과제	부처	추진 시기
1. 분야별 AI 스타트업(AI Solution Provider)의 역량 강화		
① 도메인별 특화 AI 서비스 모델 창출	중기부	‘25.하
② 분야별 데이터 생성랩(LAB) 구축	중기부	‘25.하
③ 제조 AI 전문기업 지정 및 맞춤형 지원	중기부	‘25.상
2.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한 “AI 수요 및 시장 창출”		
① 수요 연계를 통한 버티컬 AI 기술 고도화	중기부	‘25.상
② 시장수요 창출을 위한 AI 선도 프로젝트 추진	중기부·산업부	‘25.상
③ AI 접근성 제고 및 리터러시 향상	중기부	‘25.상
3. AI 스타트업 지원체계 강화		
① AI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	중기부·과기부·산업부	‘25.상
② AI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특화 지원	중기부·과기부	‘25.상
③ 지역 AI 혁신허브 구축 검토	중기부	‘25.하